

## 고려대장경 영문 표기 문제 많다

### 버스웰 교수, 3일 대장경 축전 세미나서

세계기록유산인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은 영어권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의 혼합어로 'Tripitaka Koreana' (삼장·三藏)로 불리고 있다.

'세 개의 바구니'라는 뜻을 지닌 '삼장'은 인도에서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을 새긴 패엽입사귀를 광주리에 따로 보관해 부른 데서 유래했다. 이러한 영문 표기가 고려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기에는 부적절하기에 고려대장경 자체의 고유명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사진)는 9월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국제학술포럼'에서 삼장인 'Tripitaka Koreana' 대신 'Korean Buddhist Cannon' (한국불교전적)이나 원래명칭인 '고려대장경'을 음사해 고유명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버스웰 교수는 "대장경에는 경율논 삼장 외에도 예세이 등 다양한 문헌 형식이 있기에 영어권에서 단순히 'Tripitaka Koreana' (삼장)으로 부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버스웰 교수는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동아시아 장경이 경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유산을 담고 있음에 주목했다.

버스웰 교수는 "고려대장경과 같은 동아시아의 장경은 당시 사회상을 담은 '거대한 보관소'였다"며 "그로 인해 나온 명칭이 '대 장경'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웰 교수는 "이러한 속뜻에도 현재 불교 전적을 세 개의 큰 단위로 나누는 삼장의 범주에만 평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웰 교수 발표의 토론자로 나선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대장경에 대한 초점은 물질문화인 대장경 '판'에 관한 것이



'Tripitaka Koreana' 로는 대장경 의미 제대로 못 전해 '고려대장경' 음사하거나 Korean Buddhist Cannon으로 장경은 사회상 담긴 보관소 의미 유념한 용어정리 필요

었다"며 "버스웰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고려인, 더 나아가 동아시아인들의 지적 소산이자 학문적 결실인 점에 주목해 용어 정리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Tripitake Koreana' 용어를 처음 쓴 것은 1960년대부터 한국 학계에서 라틴어 표현을 하면서부터"라며 "한국학계가 주도해 고려대장경 고유명사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버스웰 교수는 세미나에서 고려대장경 제작을 총책임한 수기(守其) 대사를 최초의 근대 문학 비평가로 평가하며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등 대장경이 문화지성사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랭카스터 버클리대 교수 또한 당시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대장경 제작은 현재 IT 발달 등에도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연구영역 확대를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기사 3면



정각회 30주년 기념법회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불교 각 종단 스님 등 400여명이 모여 불법에 기반한 정치활동을 다짐했다.

## “정치권에 자비·화합의 가르침 퍼지길”

###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4일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고 자비와 화합 등 불교 가르침에 기반해 국민에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는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983년 출범한 국회 정각회는 불자 국회의원들의 실행모임으로 실행활동과 함께 정치권과 불교계 간 소통창구를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주요 스님들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장 등 불교 신행 및 포교단체 대표, 정갑윤 국회의원 등 정각회원 및 국회의원불교신도회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국회 불자들의 모임이 30성상이 지난 뜻깊은 날"이라고 치하하며 "인류정신문화인 불교의 가르침을 펴는 불자들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교언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대독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인락을 위해 처음으로 종교 중간의 종교도 종교도 국정에 임해달라"며 "비움과 나눔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자비행을 곳곳에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정갑윤 정각회 회장은 "30주년을 계기로 의원분들은 국민이 바라는 뜻과 여망이 무엇인지 적극 수렴해 국민 행복 추구에 앞장 설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로 모든 것이 이고득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 9월 14일 청계광장서 마음껏 사랑하세요

#### 종지협, '17회 종교문화축제'

종교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축제가 열린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9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7회 대한민국의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마음껏 사랑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종교문화축제는 '내려놓기, 어울림, 바라는 마음, 나누리' 등 소마당으로 꾸며진다. '내려놓기' 마당에서는 법률, 건강, 심리, 종교 상담 등이 이뤄지며, '어울림' 마당에는 다양한 효능의 차를 만날 수 있는 카페와 구연동화차 진행된다.

'바라는 마음' 마당에서는 느린 우체통과 소원을 담아 나무에 설치하는 기원나무 이벤트가 마련되며 '나누리' 마당에서는 티셔츠 페인팅, 캘리그래피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종교문화사진전, 희망음악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신종일 기자

## 10월 10일 조계종 34대 총무원장 선거

### 중앙선관위 공고... 후보자 등록 9월 18~20일

#### 특정인 지지 반대 등 선거 금지 행위 결정도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공식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3일 제275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 일정과 금지 행위 등을 결정했다.

확정된 일정과 공고문에 따르면 선거 투표는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되고, 9월 18~20일 오전9시~오후5시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검지할 수 없는 총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9월 17일 오후 5시 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도 공지기로 했다. 교구별 선거인단은 9월 25~29일 중 선출해야 한다.

입후보하려면 △등록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기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제작등본 1부(출가년도 이후

호적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작 등본 추가) △신원조회서 1부 △경력 증명서 1부 △종법 준수 각서 1부 △투표표 잠관인 신고서 1부 △종책 공약 내용 △반명함판 사진 5매 등을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등록 기간 중 제출해야 한다.

총무원장에 입후보하려면 승납 30년, 법제 종사급 이상의 비구 중에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부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부·실·소장급 이상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법규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초심호계원장, 소청심사위원 등의 조건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했다. 교역직종무원의 선

거운동 금지와 중립의무에 대해, 선거법에서 정한 교구부사 소속 종무원에 말사 주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행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에 대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 △종책자료집 배포 △타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선거인의 숙박 및 식사 알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9월 7일 선거 관련 담화문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담화문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왜곡된 종단 선거 풍토를 단호히 근절하고 승가의 화합과 모범적인 선거문화 정립을 위한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종도들은 중립중립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 957호 INDEX

추석특집 6·7  
전국사찰 템플스테이 수행 및 나눔 행사

시방세계 5  
한반도 평화음악회 현장



강의실 증계 8  
'불교 생명관' 정연정 동국대 교수

학술·문화재 9  
중국어 표기 통일 필요 제1회 봉명사 학술세미나

문화 20  
원효 다큐 제작 김선아 감독

**제22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나로부터의 시작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교육기간 2013년 9월 28일(토)~12월 14일(토)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4:30~8:10 한이음선원 문의 TEL (031)471-6926~7 (매주 월요일 휴무)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8주 나를 바꾸는 시간**

2011년 5월 출간 이래 27개월 연속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근심이 들러붙을 데가 없는 마음을 만드는 8주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태연한 척해도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썹을 찌푸리는 횡수가 늘지 않았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들, 스스로 자기에게 지운 짐들, 어쩌면 '나는 행복해야 해!'라는 기대까지... 생각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따라 잠시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마음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마크 윌리엄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옥스퍼드 마음챙김 센터' 소장이다. 우울증과 자살 문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MBCT)'를 공동 개발했다. MBCT는 우울증 재발률을 절반으로 낮춘 효과를 인정받아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으로부터 우울증 치료의 최우선 처방으로 권장되고 있다.

**대니 펜먼**  
BBC와 (인디펜던트) 지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로, 패러글라이딩 도중에 심각한 사고를 당해 끊임없는 통증과 간헐적인 신체 기능 마비로 고통을 겪다가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자유를 얻었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